

한 중동 산업협력 및 아프리카 산업화 세미나를 위한 업무 협회

- 주동주 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센터)

1. 출장자: 국제산업협력실 주동주 연구위원
2. 출장기간: 2011. 5. 28 - 6. 4 (4박 5일)
3. 출장지: 카타르, 오스트리아
4. 출장목적: 중동의 산업정책연구기관인 걸프산업자문기구(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: GOIC) 및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(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)를 방문하여 산업연구원과 공동 연구, 공동 세미나 등 협력 논의하고 협력약정서(MOU) 체결 논의
5. 출장 업무 수행 내용 :
 - GOIC와는 Ahmed Dhaif 사무차장 등 주요 간부진을 면담하고 산업연구원을 소개하는 내용의 프리젠테이션을 함. 이어 2011년도 지

식경제부 양자사업 용역으로 수행 중인 “중동 GCC 산업다각화와 한국의 협력”에 대한 공동 연구를 논의하고 향후 양측간 공동 세미나, 인력 및 정보 교류 등 협력 문제를 논의함.

- 사전에 협의한 양측 MOU 문건을 교환함 (KIET 원장의 사인 문건을 전달하고 GOIC측 문건은 사무총장의 부재로 추후 전달받기로 함. 6월 중 우편으로 전송해와 MOU 체결 완료)
- UNIDO에서는 Dr. Lutkenhorst 사무차장(Managing Director) 등 주요 간부진과 실무진을 면담하고 산업연구원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함. 이어 2011년 아프리카 산업화 주제 공동 세미나 개최, 개도국 지원 사업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 후 양측간 MOU 문건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함.
- UNIDO 측에서는 산업연구원이 개최 예정인 11월 아프리카 산업화 국제 세미나에 사무차장이 기조연설을 해주기로 약속
- MOU 문건은 UNIDO측의 내부 규정에 따라 두 달 이상의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조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전달 받음.
- GOIC와 UNIDO의 주요 발간물 입수

6. 주요 면담자 및 면담 요지

○ Mr. Ahmed Dhaif (Assistant Secretary General, GOIC)

- KIET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산업정책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으며, 개도국 산업발전의 모델인 한국의 중요 연구기관과 GOIC가 협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.

- GOIC 사무총장이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회의 참석 중인 관계로 GOIC측 MOU 문건은 추후 우편으로 전송하겠음.

- 향후 양기관간 공동 연구와 공동 세미나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장구하는 것이 필요함. 양기관장의 교환 방문도 가능할 것임.

○ Dr. Ali Al-Abdul Razzaq (Director)

- GCC에서도 최근 민간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정부기관이 산업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음. KIET는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?

- GCC 산업다각화에 대한 KIET측의 접근 시각은 훌륭함. 그러나 현재 GOIC 연구 인력이 자체 연구과제에 쫓기고 있어 GOIC가 KIET와 당장 금년도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는 힘든 상황임.

- GOIC의 Director 중 한 명으로 최근 퇴직한 Dr. Richard Zind를 공동 연구자로 추천. 연구 결과에 따라 자체 평가를 거친 후 GOIC - KIET 공동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음.

(* 2011년도 지경부 양자사업인 “중동 GCC 산업다각화와 한국의 협력” 과제에 대해 Dr. Richard Zind 에게 일부 내용 위탁하여 공동 연구 수행 중)

- GOIC의 주요 연구인력 소개로 공동 관심사 논의

○ Dr. Wilfried Lutkenhorst (Managing Director, UNIDO)

- KIET가 한국의 산업정책 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, 지난 해 KIET가 주관한 개도국 산업화 세미나에

UNIDO 스태프들이 참여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.

- 향후 KIET와 UNIDO가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 지원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함.

- 양측간 MOU 체결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UNIDO 규정상 두 달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함.

- 2011년 KIET가 계획 중인 아프리카 산업화 세미나에 UNIDO 사무총장(Director General) 참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. 사무총장이 9월 중 방한 일정이 있으니, 그 전후에 날짜를 맞추면 가능할지 모르겠음.

- 본인이 참석하는 문제는 개최 시기를 11월 중으로 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, 10월 중에는 어려움.

○ Dr. Ludovico Alcorta (Director, UNIDO)

- KIET가 수행한 알제리 자문사업, 볼리비아 자문사업 등은 어떤 경로로 어떤 자금을 의해 수행됐는지 집중 문의

- UNIDO와 KIET가 개발도상국 산업정책 자문사업을 공동 수행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집중 논의

- UNIDO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KIET 인력이 참여해줄 수 있는 지? : 기관간 약정에 의해 펀딩 문제가 해결되면 참여할 수 있으나, 개별적인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

- UNIDO가 발굴한 사업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여 KIET와 함께 수행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.

- 현재 UNIDO가 검토 중인 라오스, 캄보디아 산업개발 사업에 KIET가 함께 해줄 수 있기를 희망함.
- KIET의 아프리카 세미나는 UNIDO측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으며, 날짜는 11월 개최를 희망함. 사무차장의 기조연설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겠음
- MOU 문건은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인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겠음